

성인(聖人) 같은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윽하게 밀려오는 행복감,
사람의 향기는 꽃보다 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 성전스님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서울YMCA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업무협약식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9월 29일 서울YMCA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와 국제 진료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YMCA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단체인 서울YMCA가 2021년 고양특례시에 설립한 복합 문화 시설로, 5만 6천㎡ 규모의 숙박, 회의, 스포츠, 교육 및 문화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센터의 숙소와 부대시설을 활용하는 등 양 기관이 다양한 마케팅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협약을 계기로 외국인 환자 유치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 진료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5 환자안전, 직원안전·보건 강조의 날’ 행사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PI실과 총무팀 공동 주관으로 지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2025 환자안전, 직원안전·보건 강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기간 동안 환자 및 직원 안전 발대식에 이어 ▲환자 및 직원 안전 퀴즈 ▲력키드로우 ▲‘동국 마블’ 환자 안전 게임 ▲환자·보호자 참여 캠페인 ▲VR 안전교육 ▲병원안전 인생네컷 촬영 ▲힐링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에서 영상의학과가 환자 안전 우수 부서로 선정되었으며, 수술실의 허은경 간호사가 환자 안전 우수 직원으로 뽑혔다. ‘환자 안전 지킴이상’은 본원의 환자 안전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환자 확인 위원회 위원들에게 수여되었으며, 소정의 선물이 전달되었다. ‘환자 안전 챌린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골든세이프티 보이즈상은 111병동이 선정되었으며, 분만장·NICU, SICU, 52병동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백용해 병원장은 “환자와 직원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있는 일이다. 이번 행사가 병원 안전문화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활의학과, 일산동구 보건소와 무료 진료 봉사 참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서민수 교수와 전공의들은 지난 9월 29일 일산동구 보건소 건강누리실에서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재활 진료 및 상담’ 무료 봉사를 시행했다.

이번 봉사는 장애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의료진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이루어졌다. 서 교수팀은 참석한 장애인들에게 신체적 불편감 해소, 재활 운동 방법, 낙상 예방 등 실질적인 재활 진료와 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대부분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집에서 국민다터 앱을 활용해 스스로 운동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했다. 서민수 교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건강을 나누고 의료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사회사업실과 재활의학과는 2017년부터 보건소와 협력하여 퇴원하는 재활 환자들을 위한 방문 진료 또는 보건소에서의 무료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동국대학교병원을 일구는 힘 **발전(후원)기금 기부자 402명** 기간 ▶ 2025. 9. 1. ~ 9. 30.

박순* 님	160,433,000
(주)국민은행	100,000,000
(주)통일의료기 이상호 대표님	30,000,000
성학스님	5,000,000
(주)아라니아 박덕선 대표님	5,000,000
원돈스님	2,500,000
원광스님	2,500,000

성화스님	2,000,000
공간인테크(주)	1,400,000
현담스님	1,000,000
증용스님	1,000,000
진호스님	1,000,000
윤성스님	1,000,000
외 390명	(단위 : 원)

동참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 문의 ▶ 대외협력홍보팀 031-961-9000